



중국단풍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단풍나무과
- ▶ 학명 : *Acer buergerianum*
- ▶ 한명 : 唐楓
- ▶ 일명 : とうかえで

빨갭게 혹은 노랗게 단풍이 물든 가로수의 낙엽들이 보도 위를 굴러가는 「낙엽의 계절」이 오면 언제나 느껴지는 것이 있다. 어느 곳으로 가나 천편일률적인 가로수 수종의 단조로움이다. 지역적인 특성이나 역사, 문화의 차이에 따라 개성 있는 가로수 수종의 다양화가 이롭다.

중국단풍은 단풍나무가 도시의 대기오염에 약한 단점을 보완한 현대가 요구하는 가로수용 단풍나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중국단풍

중국단풍은 대만이 원산인 낙엽활엽 큰키나무이다. 일본 명이 「도가에데」 「唐風」 또는 삼각단풍이라 하여 일부 묘목 생산자들이 일본명을 직역하여 「당단풍이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이름으로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단풍나무 중에 앞서 9~11개로 갈라지는 당단풍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가 따로 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중국단풍 또는 생김대로 삼각단풍이라 불려야 한다.

1. 생태적 특성

중국단풍은 생장이 빠르고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다른 단풍나무와는 달리 건조에도 강하며 맹아력도 왕성하다. 진정에도 강하며 이식력은 월등하다. 먼지나 대기오염 같은 공해에 대한 저항력도 강한편이어서 가로수로서의 구비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또 식재 가능지역도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적응력이 넓은 가로수 나무이다.



▲ 중국단풍

2. 형태적 특성

중국단풍은 키가 15m, 줄기의 직경은 1m씩 자라는 거목이다. 줄기는 회갈색으로 매끄러우나 늙으면 거칠어진다. 암수가 판나무이다.

잎은 마주나고 둔두 또는 원두이며 기부에서 3맥이 발달하고 3개로 얇게 갈라지며 열편은 3각형이고 예두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어릴 때는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한 녹색 또는 회백색이다. 잎자루는 길이가 비슷하며 어린나무의 잎은 보다 깊게 갈라지고 열편에 톱니가 있다. 산방화서는 가지 끝에 달리며 4~5월에 잎과 함께 담황색의 꽃이 피며 10

월에 프로펠라 같은 단풍특유의 시과(翅果)가 익는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건조하거나 메마른 토양에서도 잘 견디고 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등,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심내 가로수로 식재할만하다.

도심내 공원에서 계절의 맛을 더하기 위해 식재하려던 국내 자생 단풍나무류가 견디기 어려운 곳에서도 식재할 만하다. 특히 병해충에도 강하기 때문에 식재공간이 좁은 아파트 조경에도 권장할만한 수종이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와 꺾꽂이, 접목으로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종자로 번식한다. 10월에 약간 미숙 종자를 채취하여 직파 하던가 아니면 젖은 모래와 섞어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이른 봄 파종한다.

꺾꽂이는 6월경 새순이 아직 목질화 되지 않았을 때 2~3마디씩 잘라 꽂는다. 🌱



▲ 중국단풍수피